

#### 4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갈2:10)

그 가난한 자들이란 보편적인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교회나 이방 교회에게 어떤 이를 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동고동락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25:42-25)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의 진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뭐라 답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을 해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위하여 애쓰고 일한 흔적들, 그리고 이방 교회를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

#### 5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

을 권면하는 구절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 대로 하십시오." (고전16:1)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롬15:25-27)

당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유대인으로 자라고 커온 그들,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사도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받아들여지기 결코 쉽지 않았습니. 여전히 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세 기둥 야고보, 게바, 요한과 안디옥교회의 대표자이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확인하고 친교의 약속을 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소외된 자들을 위한 노력'으로 서로가 하나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굳건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진영 목사]

[www.weppc.net](http://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강해(5) Galatians 2:6-10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8월 3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 1 바울에게 동의한 사도들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유력한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안디옥교회에 파송된 유대인이었고,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디도는 어떤 사도들로부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으므로써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복음을 확증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교회를 향한 편지(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요구도 강요받지 않았다."

즉,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교리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법이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 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갈2:6, 새번역)

\*유명하다는 사람들이란, 야고보와 게바, 요한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의무적으로 선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오는 거짓형제들의 논리(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사도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 2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 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2:7-8)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도록 서로가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와 바울이 하는 사역의 비중이 동등하다는 것과, 양 쪽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율법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고는 굉장히 급진적인(radical)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기에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할 이 부분은 복음의 우주성을 나타내는,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사도들은 예루살렘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세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만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베드로)', 열두 사도 중 하나

## 3 친교의 악수

였던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 그리스도교(기독교)가 굳건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퍼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들 셋이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과 안디옥교회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함께 동의하고 서로의 복음을 확인합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의 논쟁을 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차별 없이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한편으로 이 부분은, 거짓신도들(거짓형제들)의 주장을 완전히 물리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이들은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갈2:9)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고대사회에서, 오른손을 내민다는 것은 우정의 손길이고, 협력의 손길이고, 승인의 손길입니다. 이들은 서로 오른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을 종결시키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사람을 위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세 기둥, 이 세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는 부탁이었습니다.